

북한사람의 인격구조

민성길 *

I. 서론

1. 통일의 궁극적 목적

남북통일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통합이 우선적이겠으나, 역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상호적응·문제가 최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통일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궁극적인 주체가 남북한의 일반 주민, 즉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일이 남북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상호 적응상의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독일통일의 경우 “내적통일”라고 부르며¹⁾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통일”이라고 부르는 바와 같다.²⁾ 독일처럼 통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

1) Böhm J., Brune J., Floerchinger H., Helbing A., & Pinther A, *Deutschen Stunden, Was Jugendliche von der Einheit Denken.* (Berlin: Argon Verlag GmbH, 1993); Kasse M. "Innere Einheit, In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n Bildung, (1993).

2) 민성길 · 전우택, “사람의 통일-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6 통일 연구

불편해 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한(恨)이 더 쌓이거나, 흔히 예상되는 바로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생기고 그래서 인종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더 불평하고 불행해진다면, 통일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³⁾ 즉 동서독인들은 “옆에” 살고는 있으나, “더 불어” 살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⁴⁾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된다.⁵⁾

2. 의학적 방법

1) 정신의학적 관점

지금까지 통일과 관련하여, 다른 분야의 연구들에 비해,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구조, 행동반응 및 감정 반응, 그러한 반응들의 원인적 배경, 문제해결 방법, 예방 등 심리적 적응 내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문화의 이질화와 문화충격

심포지엄 발표 논문, (1995).

- 3) Maaz, *Der Gefühlsstau*, (Berlin: Argon Verlag, 1990); Shell J. *Jugen Lebenslagen, Orientierungen und Entwicklungsperspektiv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2); Böhm J., Brune J., Floerchinger H., Helbing A., & Pinther A., *Deutschen Stunden, Was Jugendliche von der Einheit Denken*, (Berlin: Argon Verlag GmbH, 1993); 서병철·전병수, 『통일사회의 재편과정』(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전태국.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 통일과 동구의 변혁』(서울: 한울, 1998); Wirtuk E. "Makrostruktuelle Verandelungen in Ostdeutschland-Objektive und Psyschen Auswirkigen," 원광사회과학연구소 초청강연, (1998).
- 4) Genosko J., "Zwischenbilanz der Inneren Einheit in Deutschland," (독일 내부통일에 대한 중간결산), 한국사회학회 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 5) 민성길,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과 적응문제," 『통일이후』 1권 (1998).

민경환은 남북한 사회 문화의 이질성으로, 첫째, 남한은 자유경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취적, 자율적, 개인주의적, 경쟁적인 측면이 강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반면, 북한 사회는 통제된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하여 수동적, 집단주의적, 협동적인 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남한은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을 가졌지만 북한은 초기 산업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셋째, 남한은 개방사회이지만 북한은 폐쇄사회이며, 넷째, 남한은 자유사회에 가깝지만 북한은 권위주의 사회에 더 가깝다고 하였다.⁶⁾ 이장호는 남북한 동질성의 심리적인 원형으로 “같은 언어와 풍습, 그리고 4천년이상 함께 살아왔고, 그래서 같은 한 민족끼리 다시 함께 살아가고자”하는 민족적 염원이 있지만, 분단 이후 체제 종속적 사회 환경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뚜렷하게 이질화되었다고 하였다. 즉 남북한간의 인지 양식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정서 구조에서는 조건성과 절대성으로, 그리고 행동 경향에서는 시장지향성과 이념지향성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⁷⁾

통일이라는 사건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소위 “문화충격” (culture shock)이라는 개념에 해당된다.⁸⁾ 이는 흔히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들어갔을 때 나타내는 현상이다. 즉 문화충격이란 이민자들이 과거에 가졌던 관습, 생활방식, 가치관 등이 이주한 낯선 사회에서의 그것들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느꼈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그에 의한 정신장애의 발생에 대해 이름 붙여진 개념이다. 이 개념은 그 후 확대되어 입학, 결혼, 입사, 이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충격이나, 난민, 수용소(concentration camp), 사회통합, 국가 통일 같은 거대한 사건에 있어서의 문화충격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

6) 민경환, “심리적 관점에서 본 한국통일,” 『심리과학』 3권 (1999).

7) 이장호, 『통일의 심리학』 (서울: 정토회, 2000).

8) 민성길, “남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 『통일연구』 4권 (1999).

어 왔다.

이와 같이 남북통일이 되는 과정 중에 남한사람과 북한사람들이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탈북자들이 보인 것처럼 남북한 사람 모두 삶의 수준이나 방식뿐 아니라 의식구조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문화충격을 느끼게될 것이다.⁹⁾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 또는 개인의 취약성에 따라 좌절, 피해의식, 반항, 홍분, 범죄 등과 같은 적응문제를 나타낼 것이며, 일부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 더구나 그것이 만일 갑자기 닥치는 통일이라면, 이는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문화충격 이상의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격이론

이 모든 문제, 즉 문화충격, 갈등, 적응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결국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방식, 감정반응 등 의식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식구조란 정신의학적으로는 인격(personality)을 말한다. “사람의 통일” 또는 “내적 통일”이란 결국 남북한 사람들의 인격과 인격간의 만남, 내지 의식구조간의 충돌, 조정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인격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주된 이론에는 정식분석에 기초한 정신성적발달이론, 인격의 구조와 방어(정신)기제 등에 대한 역동적 이론과, 인지이론, 학습이론, 정신 사회적 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비교하고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충격 현상과 충돌, 조정, 화해의 과정을 예측하고 대비해 본다는 것은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동시에 학술적으로도 매우 흥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9) 전우택 · 윤덕룡 · 민성길, “남한 비정부기구(NGO) 소속 자원 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미발표 논문, (2001b).

탈북자 연구

북한 사람들의 인격, 정신상태 내지 의식구조가 어떠한가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 현지에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장기간 생활하면서 연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기회를 얻은 연구자도 없고 앞으로 당분간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연구를 아예 포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통일은 어찌됐던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가능한 한 간접적이라도 연구를 하여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구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저자의 연구를 포함한 많은 탈북자 연구들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장래가 비교적 낙관적이라 생각되나 또한 북한에서 형성된 인격과 의식구조 때문에 남한사회 적응에 적지 않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¹⁰⁾

비록 탈북자가 북한 사람을 대변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가 진실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방법, 즉 표면적 자료(즉 의식적 자료) 뒤에 숨어 있는 심층적 자료(즉 무의식적 자료)를 유추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비교적 유의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 후 남북 사람들 간의 상호적응 문제 등을 예측하고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10) 민병천,『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서울: 국토통일원 조사 연구실, 1980); 민성길,『통일과 남북청소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1994);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논문, (1995);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 동포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현안분석』 119호 (국회입법조사 분석실, 1996).

II. 북한 사람의 인격발달과 의식구조

이 논문에서 저자는 남북 소아청소년들의 인격발달에 대한 연구와 탈북자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북한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논하고 이를 남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각각의 장점보다 문제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구는 결국 통일 후 갈등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람의 통일”을 이루고자 함이 목적인데, 약점이나 문제점이 주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에는 장점도 많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생각해 보면 문제점을 안다는 것은 장점이 되는 수도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북한 소아청소년의 인격발달

우리가 소아청소년의 생활과 인격발달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생주기에 있어 과거를 기반으로 하여 성인의 인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라 어른이 된다면, 그러한 보편적인 인격의 모습은 북조선형 사람, 남한형 사람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는 거의 2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그러한 사회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의 인격발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정신 사회적 이론상 대단히 주목되는 바이다.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발달에 있어서 북한 소아청소년은 신체적 발육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¹¹⁾ 아마도 이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영양상태 때문으로 생각되나, 사회적 자극의 부족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신체발육상태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뇌 발달과 관련하여, 그리고 작은 체구에 의한 열등의식 등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11)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북한 가정에서의 경험은 아주 어릴 때는 남한이나 세계의 일반 가정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특히 북한에서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탁아소에서부터의 경험은 특수한 바 있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어머니와의 조기분리, 복수의 부모상이라는 경험은 애착형성에 혼란을 주어 수동적 의존적 성향을 강화하거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지연시키고 폭력적 해결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조장되는 등 정서적 발달이 불안정하거나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 소련 스탈린주의 시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실제 부모보다 더 강력한 어버이 수령에 대한 의식은 피부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부모의 상과 갈등을 야기하여, 무의식에 양가감정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¹²⁾ 자식에 대한 기본태도는 남한과 다를 바 없으나, 부모의 훈육 중에 특이한 것은 “말조심하라” 또는 “조신하게 처신하라”는 것이다. 즉 가정 밖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 사회에서 금기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 북한에서 중요한 생존방법인 것이다.

정신성적 발달도 다소 늦은 것 같다. 어려서부터 사회기관에서 집단적으로 양육되고, 학교에서도 획일화된 교육과 집단적 행동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성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고 이성교제의 경험도 제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성에 대해 억제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전반적 사회분위기에 의해 남녀간의 차별이 크고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도 크다. 따라서 사춘기에 이르러서도 이전 단계, 즉 잠재기(학동기)가 연장되어 그 특징이 되는 동성간의 동무관계와 패거리(집단)에 대한 우정과 의리가 보다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통해 청소년

12) Brofenbrenner U, *Two Worlds of Childhood: US and USS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0); Heinicke C, “Some Effects of Separating Two-Year-Old Children from their Parents,” *A Comparative Study, Human Relations* 9 (1956).

기의 정신성적 에너지와 감정이 발산된다. 즉 사춘기에 이르러서도 그 전 단계의 또래관계(chumship)가 연장되고 이러한 동성간의 집단 행동이 쉽게 성인세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동성간의 패거리 경험이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집단성, 배타주의, 폐쇄성, “자기사람 봐주기” 등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한다. 또는 반대로 그러한 북한사회의 특징이 청소년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탁아소에서와 같이 학교 교과과정도 획일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지적 자극이 일방적이며 제한되어 있다. 즉 인지발달 이론¹³⁾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조작기 이후의 발달이 지체되는 것 같으며, 따라서 유동적 지능은 사춘기에서 당연히 지체되는 데다가 결정화된 지능마저도 제한된 교육, 문화적 경험의 한계로 더 이상의 발전이 장해된다. 중요한 토론장으로 생각되는 생활 총화도 타성화가 되어 버린 상태인 것 같다. 따라서 인지기능 발달이 제한되고 세계관도 좁고, 비판적 도덕의식이 편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 같다.

사춘기 특유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혼란기¹⁴⁾는 있는 것 같으나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잠재기적 집단적 정체성이 강화되어 있고, 집단적 영웅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동일시 대상이 되나, 사춘기적 성적 정체성 문제도 적은 편이다. 고민거리는 주로 출신성분, 진로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었다. 정체성 문제는 발달지연과 자극 부족으로 늦게 시작되는 것 같고, 또한 가족성분이라는 제한조건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며, 그리고 군 입대에 따라 일찍 체념하여 “정체성 조기마감”으로 끝나는 것 같다. 또한 교육에 의해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국가관이나 사회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주어진 대

13) Inhelder B & Piaget J,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Wiley, 1958).

14)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8).

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발달에 있어 집단양육, 획일화된 교육, 패거리 경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 사회분위기 등은 성장초기에는 수동, 의존적인 경향을 갖게 하고, 성장에 따르는 주도성 형성과 공격성의 표현 등 다양한 잠재성의 발달을 제한하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 소아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순종적이고, 예의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반사회적 비행이 적고, “인간성”을 중시하고, 또한 사회주의적 교양에 의해 사회에 대한 봉사의식과 이타정신, 그리고 이상주의적 시각은 보다 발달해 있음을 확실하다. 그러나 반면 그 이면에는 기본적 불신감, 의심, 죄책감, 열등감 등이 점차 자라나 무의식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 신뢰의 실패는 성인사회에서의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정신 사회적 이론은 북한사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⁵⁾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¹⁶⁾ 북한청소년들은 탁아소 경험이나 복수의 부모상, 부모보다 권위적이나 추상적인 수령에 대한 강조, 타성에 젖었다 해도 생활총화라는 특수 경험 등은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을 조장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크다. 한편 패거리조직에서 통용되는 “베타적”폭력에 대한 허용은 또 다른 도덕적 결함을 시사한다. 한편, 나이가 들에 따라 눈뜨게 된 북한사회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해 불만을 가지나, 비판하고 반항하기보다는 압도적인 통제에 의한 순응 내지 체념하고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부정행위를 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권위나 정치 사회적 권위 대한 공포나 경외감은 있으나, 죄의식은 희박한 것 같다. 따라서 도덕적 의식도 단순하고 제한적이며,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관습수준”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15) Erikson E, 앞의 글, (1968).

16) Kohlberg L. "Moral Stage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Lickona T.(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ew York: Leihart and Winston, 1976).

남한에 비해 북한 소아청소년들의 경험 중 결여된 것 중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종교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

최현 및 김지영의 연구에서도 남한의 중고등학교 교사와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귀순자들이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의 성격을 평가하게 한 결과, 남한 청소년의 장점으로는 ‘자유롭다’, ‘적극적이다’, ‘개성이 뚜렷하다’, ‘예의바르다’, ‘다정다감하다’, ‘사교적이다’, ‘꾸밈이 없다’, ‘융통성이 있다’, ‘적응력이 높다’로 나타난 반면, 단점으로는 ‘이기적이다’, ‘남을 잘 속인다’, ‘솔직하지 못하다’,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시작한 일을 끝맺지 못한다’,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 ‘무례하다’, ‘의존적이다’, ‘나태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 청소년의 장점으로는 ‘단결력이 강하다’, ‘침착하다’, ‘사리분별이 강하다’,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 ‘맺고 끝내는 것이 명확하다’, ‘임무에 충실했다’, ‘참을성이 강하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단점으로는 ‘자기 의견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생각하는 범위가 좁다’, ‘쾌활하지 못하다’, ‘자기 주장이 약하다’, ‘과격하다’, ‘무례하다’, ‘위선적이다’ 등으로 나타났다.¹⁷⁾

도종수는 문헌을 고찰한 후, 정치의식에 있어서 남한 청소년은 민주주의에 대해 확신하나 정치·정부에 대한 신뢰도 약하나, 반면 북한 청소년은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 신념은 있으나 점차 이중적 의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의식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자율, 능동적, 이기적,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크고 정신노동을 선호하나, 북한에서는 수동적, 이중성의 성향이 크고 최근 이기주의, 물질주의, 절도 등 일탈행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체노동을 중시하나 점차 정신 노동을 선호하며 도시 생활을 동경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사회문화의식

17) 최현·김지영, “청소년 성격 형성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태도, 개방성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 대중적 문화의식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조직성, 폐쇄성, 순종적 태도, 온정적 경향 등이 발달해있다고 하였다.

탈북자들을 도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들의 특징으로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독립심의 부족-의존성, 경제생활의 미숙함, 예의바름, 남성우월주의. 인간적 정의 중시, 소박-겸소, 적극적 성격-강한 의지력, 비타협적 공격적 태도 등을 들고 있다.¹⁸⁾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상기한 바와 같이 집단성, 순응성, 우울한 성향, 폭력성, 도덕적 이중성 등과 비교적 일치한다. 또한 구 소련의 청소년에 대한 Brofenbrenner와 Roger 등의 연구 결과, 즉 기존 사회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내적 가치관이 다양하지 못하고, 복종적이며, 자기 절제적이고, 청결, 질서, 예의 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진실을 말하거나, 지적인 이해를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일치하는 편이다.¹⁹⁾

2. 북한 사람의 의식구조

1) 정신성적 발달의 관점

북한의 소아청소년기는 성인기로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가 통제된 사회로서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 이상의 것을 성인에게 제공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즉 청년기에 군대를 가거나 직장에 들어가도 여전히 단순한 생활, 욕구의 통제,

18)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40권 (2001).

19) Roger R., Bronfenbrenner U & Devereux EC Jr, “Standards of Social Behavior among Shell Children in Four Culture,” *Int J Psychol* 3 (1968).

억제된 자아, 강한 사회적 초자아, 잠재기적 집단성에서의 의존, 획일성, 사회주의적 공동체의식, 제한된 세계관, 관습수준의 도덕성, 조기 마감되어 정체된 정체성 등이 그대로 지속될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도 신체적 영양 결핍도 계속될 것이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도 제한될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도 결핍될 것이고 특히 종교적 영적 경험도 결여될 것이기 때문에, 즉 전반적인 결핍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그들의 의식구조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연장되어 사춘기적 특징인, 틀에 박힌 사고, 자기 중심성, 개인적 우화, 자기에게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정의가 있다는 완고한 신념 등이 강화된 상태로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청년기 이후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의 발달을 억제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탈북자들이 남한사람의 눈에 소박-검소하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 있다.²⁰⁾ 이에 더하여 북한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 역시 독특한 “남자들끼리의 공동체”의식, 남녀불평등 의식을 조장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고 현실을 알게되면 상처받기 쉽다. 그 결과 더욱 폐쇄적으로 위축되거나 열등감과 무능력함,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정보를 제한하고 경험을 박탈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박탈과 결핍에 처한 사람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학습을 내부화(introjection) 또는 동일시(identification)라고 하며 그 내용은 그대로 인격화한다. 그 강력한 효과는 정신 의학사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2) 인지이론적 관점

20)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남한 비정부기구(NGO) 소속 자원 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분석,” 미발표 논문, (2001).

제한된 정보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그리고 교육의 제한으로 북한사람은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생활도 통제되어 있고 대인관계도 통제되고 여행도 통제되어 있어 자유세계에 비하면 지식뿐 아니라 사회성기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왜곡된 정보의 제공은 그나마 인지기능도 왜곡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사람의 특징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순박성, 순수성, 또는 단순함 나아가 낙관적 세계관 등은 이러한 제한된 정보와 발달이 지연된 인지기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치 내지 사상 지향성

북한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신과 사상과 도덕이 물질보다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는 것과 그리고 당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르고 완수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적 이상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숭고한 삶을 추구할 것 등 가치 내지 사상 지향적인 교육을 받아 왔다.²¹⁾ 남한사회는 사상적으로 다양한 사회이며 절대적 하나인 원칙이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칙이라던가 위로부터 강요되는 공식규범이 있어 모든 삶은 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다.²²⁾ 북한의 주민들은 모든 사실을 절대적으로 사상적 또는 정신적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과도한 사상성, 내지 사상 우위성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다. 탈북자도 북한에서의 교육의 결과로 강한 가치 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²³⁾ 일례로 탈북자들은 남한의 고등학

21)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22) 이종석·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서울: 통일원 통일연구원, 1996).

23) 전우택·민성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

교 국사 교과서에 역사의 방향이나 지향하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직성과 흑백 논리적 사고

이러한 가치 내지 사상 지향적 태도는 앞서 말한 제한된 정보, 단순성, 순응성, 통제, 무력감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학습되는 것 같다. 결과 북한 사람들에서 대체로 자신이 한번 옳다고 믿은 것은 끝까지 옳다고 우기고,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항상 최고의 도덕적 선을 향하여 살아가겠다는 명분을 강조하는 등 도덕성과 사고의 단순성과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탈북자 중에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경직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²⁴⁾ 이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대립된 개념이나 상황에서 적절한 타협을 찾기보다는 이분법적 내지 흑백 논리적인 판단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합리적 타협을 오히려 비겁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국은 양단 간에 어느 하나를 택하면 죽어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탈북자는 자신과 정치적 생각이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 등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다른 탈북자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들과의 객관적인 대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경직된 흑백 논리적 사고방식이 뚜렷한 사람이 많았다.²⁵⁾ 성영신 등의 공동연구에서도 월남동포들은 북한 주민들이 ‘고집이 세고, 배타성이 강하고,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틀에 박힌 듯하고, 경직되어있다’고 그 특성을 꼽았다.²⁶⁾

자의 삶: 문제와 대책』(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24) 전우택·민성길, (1995); 김명세, 앞의 글, (1996).

25) 전우택·민성길, 앞의 글,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26) 성영신·성정희·심진섭,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1993).

이러한 흑백 논리적 사고 방식은 부분적으로 북한에서 교육하는 이분법적 ‘흠모와 증오의 교육’ 때문인 것 같다. 즉, 북한사람들은 김 일성에 대하여는 끝없는 흠모를 하여야 하지만 제국주의, 좌취계급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는 비타협적 투쟁과 끝없는 증오를 하도록 교육받았다. 이러한 대상을 확연하게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기제를 정신의학에서는 분리(splitting)의 정신기제라고 한다. 분리의 기제에 의하면 상대는 전적으로 나쁘거나, 전적으로 선한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북한사람들은 교육과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중간의 어떤 적절한 타협점을 얻기 어려운 심리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3) 행동 이론적 관점

순응성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과 삶에 대한 질문에 자기 스스로 답할 수 없다. 즉 식량의 획득, 직장, 주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 모든 것에는 이미 국가가 정한 “정답”이 있다. 이종석 및 김연철에 의하면, 북한사람의 정치인식의 근거가 되는 혁명적 수령관이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보고 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동일시하는 단순 논법의 이론으로, 이를 인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령과 당, 인민은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 있어, 대중은 생명의 은인인 어버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북한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수령과 당은 강할 뿐만 아니라 옳고 선하고, 한없이 베풀어주는 존재이나, 개인은 받은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는 무능한 부끄러운 존재라는 신념이 반복 학습

27) 이종석 · 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서울: 통일원 통일연 구원, 1996).

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만이 아닌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히 보는 일반적 특징으로 생각된다.

북한에서의 삶은 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정답에 대한 “순응의 문제”였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내적 원칙”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 반면 일단 자신의 순응을 피치 못할 것으로 받아드리면, 강력한 어버이 수령에게 어린아이 같은 심성으로 순응하고 의지하는 것도 당연시되며, 비로소 안전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앞서 말한 북한사람들이 보이는 단순한 낙관적 즐거움도 이로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 순응의 학습은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통제와 처벌 그리고 억제정책과 최근의 식량이라는 보상(reward) 수단을 이용한 재 강화(reinforcement)라는 학습이론에서 말하는 기제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전우택 및 민성길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예절바른 모습, 순응적 자세등 유교적 태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탈북자들을 도운 경험이 있는 남한사람들도 한결같이 그들이 예의바른 점이 호감이 간다고 하였다.²⁸⁾ 이는 그들이 얼마나 순응적인가를 응변하는 것이다.

학습된 무력감

탈북자의 모습, 통일전 구 동독인의 모습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본 현재 북한 사람들의 순응적 모습을 종합할 때, 북한 사람은 정신병리학에서 말하는 소위 “학습된 무력감”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에 빠져 아무리 허우적거리도 결국 해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될 때, 드디어 도달하게 되는 자포자기 상태의 심리상태이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주어진 대로 살아야하고 스스

28) 전우택·민성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적으로 거부된 체제에서 의욕과 기력을 잃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는 침체와 우울증이다.

4) 정신 사회적 관점

북한식 집단주의

북한은 사사로운 생활, 개인주의, 이기주의, 종파주의를 배척하고,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집단주의 사상과 조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협동적 태도를 가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사회를 사회주의, 또는 혁명적 “대 가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 가장은 수령이며, 기타 가족은 가장에게 충성과 효성을 보여야 하는 인민이다. 이는 북한이 흔히 남성우위의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라고 비판받고 있는 바와 같다.²⁹⁾ 북한은, Triandis가 집단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한 바,³⁰⁾ 자기 자신보다 집단의 관점, 필요 및 목표를 더 강조하고, 개인의 즐거움보다 집단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규범이나 의무를 더 강조하고, 집단과 구별되는 자신의 신념보다는 집단과 공유하는 신념을 더 강조하고, 집단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집단성을 중시하는 문화의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는 집단에 충성하기만 하면 의식주 모든 것이 주어지고 삶이 보장된다. 행복과 만족은 집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소년들도 패거리 조직과 의리를 중요시한다. 특히 집단적 영웅을 존경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일

29) 이온죽,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 『북한연구』 1권 (1990); 차재호,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2000).

30) Triandis HC,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0).

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집단이나 이웃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하였고 그것이 북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이종석 및 김연철이 현재 북한에서는 많이 변화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북한의 공식규범이 집단주의, 희생정신, 동지애적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 바와 같다.³¹⁾ 그러기에 많은 탈북자들은 자립의지가 부족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특징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³²⁾

그러나 현실적 문제로서 북한 사회가 대 가정이기 보다 심한 가부장적 내지 봉건주의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³³⁾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불평등 구조가 생겨나고 있고, 남한사회에서와 똑같지 않아도 학연, 지연 등 나름대로의 연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타주의 정신

많은 북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같은 집단에 속한 타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의식이 강하고 공생공사(共生共死)의 의식이 강하다. 최현 및 김지영 그리고 성영신 등에 의하면, 남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부에 입각한 차등적 지위가 중시되고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음에 비해, 북한 사람들에서는 집체주의(집합주의의 일종)와 평등의식이 발달해 있다.³⁴⁾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31) 이종석 · 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서울: 통일원 통일연구원, 1996).

32) 전우택 · 윤덕룡 · 민성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40 (2001); 전우택 · 윤덕룡 · 민성길, “남한 비정부기구(NGO)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미발표 논문, (2001).

33)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34) 최현 · 김지영, “청소년 성격 형성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성영신 · 성정희 ·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이기주의를 나쁜 것으로 본다.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을 비교한 김홍규(1992)의 연구에 의하면, 남한 청소년은 개인적 자유의식이 강하여 자아의식과 자기주장이 뚜렷한 반면, 북한 청소년은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집단적 이타주의를 매우 강조하고 집단 내에서 (다시 말하면 공식석상에서) 열정적으로 나타낸다. 이념적으로는 이러한 집단적 이타주의는 강렬한 민족애 내지 동포애로서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된다.

탈북자들을 도운 경험이 있는 많은 남한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적이고 정을 중요시하는 데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³⁵⁾ 따라서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남한 사회가 자기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당황해 한다.³⁶⁾

도덕수준

가치 지향적, 사상 우위적 사고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 의 한 쪽 귀퉁이에서는 은밀한 형태로 부패가 발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 부모가 당 간부나 유력자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을 당연히 기대한다고 한다. 최근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집단에 대한 의존이 거부되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개인과 가족 단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가난해진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응적이다. 혜택이 많은 당에 입당하기 위

35) 심진섭,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36) 전우택 · 윤덕룡 · 민성길, 앞의 글, (2001b).

36) 전우택 · 민성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 ·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해, 또는 진학하기 위해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친다거나 하는 부패행동은 뜻밖에도 당연시된다. 돈을 무시하는 사회체제에서도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재주껏 양식과 재산을 챙겨야하는 것이다.³⁷⁾

현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텁발 경작이나 농민시장이 발달하고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인기가 있다. 경제난 가운데서도, 통제적 집단조직 내에서도 영악하게 살아 남는 방법을 터득하여 그런 사회에 잘 적응된 삶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석 및 김연철은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고 한 바, 공식적으로는 당과 국가에 충성을 보이나 개인적으로는 요령부리기, 태만 등 소극적 저항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³⁸⁾ 따라서 이타심, 의리, 이상적 사회주의적 사상성,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을 중시하는 심성 등 청소년기적 순수한 품성은 점점 퇴색되고, 관습수준의 도덕성³⁹⁾ 내지 도덕적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도덕적 분리나 혼란은 탈북자들의 돈에 대한 양가감정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돈을 사상적으로는 멸시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중시하는 것이다. 탈북자들도 돈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돈버는 일과 재산을 확보하는 일에 매우 강박적이다.⁴⁰⁾

37) 전우택·민성길·윤덕룡, “북한 탈북자들의 정신건강 및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용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구 보고서』(1998).

38) 이종석·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서울: 통일원 통일연구원, 1996).

39) Kohlberg L, “Moral Stage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Lickona T.(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ew York: Leihart and Winston, 1976).

40)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40권, (2001a);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남한 비정부기구(NGO) 소속 자원 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미발표 논문, (2001b).

베타주의

한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보게 되므로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은 심정적으로 한 가족으로 여기게 되어 강한 유대감과 응집력을 형성하고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반면, 집단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경원시하고 베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⁴¹⁾ “우리식 대로 살자”하는 구호도 이러한 베타주의의 반영이다. 이러한 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잘 믿지 않고,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꺼려하거나 비타협적인, 접촉하기 어려운 느낌, 심지어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인상과 일치한다.⁴²⁾ 그러므로 집단주의적인 북한 사회가 다른 집단을 곤잘 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해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게되면 와해를 막기 위해 내부적 결속을 다져야 하는 바, 그럴수록 외부의 적을 만들고 베타적이 되기 쉽다. 그에 따라 증오, 피해의식, 분노 등의 감정이 촉발되기도 쉽다.

5) 영적 빈곤

북한에서는 종교는 물론, 신앙이나 신의 개념은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인지 탈북자들은 남한의 종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며, 종교의 영향에 적응하는데 걸보기와 달리 내심 많은 혼란을 느끼며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⁴³⁾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생활이 그렇게 빈곤하다는 사실마저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활을 비교할만한 외부세계의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한사회 밖에 모르고 그 안에서 현실생활과 생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철학적, 종교적, 초월적 개념이나

41) 한성열,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

42) 전우택 · 윤덕룡 · 민성길, 앞의 글, (2001a, b).

43) 전우택 · 민성길, 앞의 글, (1996).

태도가 발달하기 어렵다.

반면 주체사상 등 정치사상이 종교처럼 이용되고 있다. 수령에 대한 숭배가 종교적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는 견해가 있고, 특히 주체사상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내지 신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⁴⁴⁾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그러한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정치이데올로기가 사라진 후에 건전한 사상이나 종교가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독일통일의 경우와 같이 신나치주의 같은 극우 또는 극좌사상이나 사교적 성향이 강한 종교가 북한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대부분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또는 그들의 정신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천민자본주의로만 점철된다면, 그것은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거나 남한 출신 사람들과의 경제적 비교에 따른 불만을 증폭시키고 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종교계의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

3. 감정 반응

사람은 정신역동적으로内外의 자극의 결과로서 느낌의 반응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감정반응이다

1) 낙관성

북한 사람들의 순수하고 순박한 표정과 미소는 흔히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낙관적 감정과 유사한 것 같다. 이는 다른 세계를 모르는 정보의 제한, 시키는 대로하면 된다는 통제함에 의한 안전한 느낌, 강력한 어버이에 대한 의존에서 오는 안도감, 집단에의 의존에서 오는 안도감, 주입된 선전에 의한 학습 등 전반적으로 인격발달 지연과

44) 박명철, “주체철학의 이해와 평가,” 연세대학교 세미나 1999년 11월 22일.

관련되는 것 같다.

초기 북한의 집단적이고 이타적인 사회체제와 한국사람 특유의 교육열과 근면성, 북쪽 지방 사람 특유의 강한 생활력, 그리고 북조선 정권의 독재적 리더쉽이 결합하고, 잠재력이 총동원되어, 전쟁 후 사회건설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성공과 자부심이 그러한 체제를 조건적으로 재강화(conditioed reinforcement)하는데 일조 하였을 뿐 아니라 낙관적 정서도 강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상낙원에 대한 선전과 외부정보의 차단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체제는 장기화 할 때 경직되기 쉽고, 재강화 효과는 반복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결국 사람의 잠재력이 오히려 억압되고 침체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낙관적 정서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잔재는 어린이들과 소수의 변두리 지역의 정말 순박한 사람들의 미소나, 낙관성이 상동적으로 표현되는 무대공연, 공식행사, 예술작품 등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2) 긴장과 조심성

북한 사람도 사람이며,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욕망이 없을 수 없다. 어릴 때는 이 욕구들이 소규모로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또 사회는 이를 용납한다. 이는 바로 단순한 낙관적 정서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라면서 이 욕구들은 점차 강하게 되고 또 다양하게 확대되나, 사회가 이를 점점 강하게 통제하게 된다. 그 욕구와 통제 사이에 긴장이 야기된다. 북한은 강력한 통제국가이다. 북한 사회 전체가 조용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는 방문자들의 인상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긴장감을 반영하고 있다.

긴장이 심해지면 내외의 자극에 대해 경계상태에 돌입한다. 이러

한 긴장상태는 쉽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다. 북한의 경계와 긴장상태는 매우 오래되고 생활화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상태에 있음을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 부모의 “말조심하라”는 훈육은 불안이 생활화된 예이다. 그러나 긴장이 오래가면 사람은 피곤해지고 능력이 고갈되고 통제력이 감퇴되기 쉽다.

이런 긴장과 불안 상태에서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일사불란한 행동이 강조되는 것이다. 불안한 사람은 모험이나 창의를 발휘하려하기 보다는 같은 일, 전에 해보아서 안전했던 일만 반복하려하거나 과도하게 완벽해 지려하고 강박적이 되기 쉽다.

북한 사회에서는 긴장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평소에 감정을 일정 방향으로 표출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국가적 의식 때 큰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열렬히 환호하는 것, 공식적인 적(예를 들어, 남한 정권이나 미국)에 대해 격렬하게 공개적인 증오를 표현하는 것 등이 그 장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신기제를 정신분석에서는 대체(displacement)라고 한다.

3) 분노와 그 파생물

통제와 결핍의 결과 그 반응으로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식행사에서의 공식적인 분노표시 이외에는, 사람들의 분노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나타내는 분노의 감정은 대단히 강렬하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는 이를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분노는 그대로 표현될 수 없다면 다른 다양한 감정적 파생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분노의 에너지를 증오와 적개심의 형태로 외부의 적에게로 투사(projection)하게 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박갑수에 의하면, 공산주의를 이끌고 나가는 기본적인 동력은

“인민의 적개심”에서부터 나온다고 한다.⁴⁵⁾ “혁명은 적개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한 레닌이나 모택동과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인민의 적”을 만들어내고, 인민대중이 그 적에 대해 강도 높은 적개심과 투지를 가지도록 교육 선동한다.

분노는 피해의식과 공격성, 그리고 예민한 자존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분노를 야기한 통제에 대해 반동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차재호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이나 외부 다른 나라들이 은연중에 북한에 대해 나타내는 압박을 느끼게 될 때는 분노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약자로서의 마음속에 피해의식과 복수적 공격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⁴⁶⁾ 강한 자존심에의 집착 내지 예민한 자존심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는 표리의 관계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지지 않으려고 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예이다. 진정한 자존심은 열등의식과 관계없으며, 대단히 자유롭고 용통성이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이나 “자존심”을 강조하는 태도, 멀시받는 것에 관한 강한 분노의 표시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분노와 피해의식이 결합되면 그 반응은 공격성이다. 공격성은 소극적으로 또는 실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비공식적”인 폭력적인 패거리 조직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동네에서 보는 격렬한 싸움질 등도 충동적 공격성의 한 표현이다. 소극적 또는 수동적 공격성이란 공격, 복수 또는 저항은 하되 소극적인 방법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 공격성은 북한 사람들의 내부적으로 평소 반응을 자제하는 표정이나 태만행동, 요령부리기 같은 일반적 행태 혹은 대외적으로 상대방을 애태우게 하는 것, 약속된 공식적 일

45) 박갑수, “북한사회의 집단적 개인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1998).

46) 차재호,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2000).

정을 말없이 연기하는 행동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⁴⁷⁾

한편 자신이 이러한 공격성, 증오를 가지고 있음은 상대방이 눈치 채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행동을 강하게 통제한다. 그 결과 필요이상으로 공손하거나 예의를 차리거나 친절하다. 이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이라는 정신기 제이다. 과공은 비례(過恭非禮)란 말이 있듯이, 너무 의식과 예절을 강조하고 공손하면, 상대방 사람은 무언가 불편을 느끼는데 이는 속에 잠재된 피해의식과 증오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어마 어마한 의식이나 깍듯한 예절을 강조하는 행태는 남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색하다.

이와 같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대개 평소 조용히 예의바르게 행동하나 어쩌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자존심이나 열등 의식을 약간만 건드려도 충동적으로 크게 반응한다. 북한사람들은 적절한 평계될 자극이 있거나, 분노를 나타내도 충분히 팬fbe은 기회나 명분이 주어진다면, 즉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이 있거나, 남들도 다같이 인정하는 약점이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드러난 잘못이 발견될 때, 북한 사람은 즉각 비난하거나 공격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공개처형 같은 예에서 보듯이 공식적인 법적 처벌이 대단히 무섭다. 북한 사람이 정중한 미소를 보이면서도 언뜻 내 보이는 강력한 발언 등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의도적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북한 사회의 통제에 의한 전반적 긴장상태와 공격성 내지 충동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침체

전술한 결핍의식, 상실감, 무능함, 열등감 등은 궁극적으로 침체와 우울증을 야기한다. 최근의 경제적 결핍도 상실감을 조장할 가능성

47) 이종석·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서울: 통일원 통일연구원, 1996).

이 있다. 둘째, 분노를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으로 향하게 될 때, 침체상태가 야기된다. 억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할 뿐 아니라(이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억제(suppression)라는 정신기제이다), 무엇이든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야기한다. 이 무력상태가 반복되고 오래가면 그 상태가 굳어지게 된다.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 하며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이론 중의 하나이다. 북한 사회는 이러한 학습된 무력감이 학습되고, 지배하는 사회로 보여진다. 이런 사회에서는 변화, 개혁, 혁명 등은 꿈꾸기 어렵다. 북한 사람의 지친 듯한 무표정한 얼굴표정, 말이 적음, 통제된 신중한 언동,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라앉은 듯한 사회분위기 등은 우울증이 사회전체에 산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면,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듯이, 분노와 공격성의 극치로서 ‘너 죽고 나 죽자’하는 심정이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적을 공격하거나, 차마 남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화살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 결과, 자학이나 자해 또는 자살하기도 하는데, 이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극단적인 반응의 예가 된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도 고통의 감수라는 의미에서 자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긴장과 분노 그리고 우울증은 사람들의 신체도 병들게 한다. 따라서 북한사람들에게 정신신체장애, 즉 소위 신경성 장애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III. 남북한간 차이에 대한 의학적 고찰

1. 남한사람의 의식구조

그러면 북한 사람에 비해 남한사람은 어떠한가? 우리는 남한 사람

에게도 문제점 또한 많음을 알고 있다.

과거 남한에서도 6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단순 순박하고, 무지하고 거칠고 순응적이고 남녀차별이 심했고 이웃과 잘 나누고 의리를 중시하고 애국심이 강했었다. 또한 남한에서도 과거에는 가난했었고 또한 군사독재시절이 있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남한 사람도 통제된 삶을 살았고 많은 사회적 억압이 있었고 당시 시대는 폭력, 불안, 우울이 만연했으며, 그야말로 암울했었다. 그때는 현재의 북한에 대한 설명과 같이 우울증의 시대였다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남한도 북한과 같이 단순하고 순박하고 덜 계몽된 사회였기 때문에 군사독재가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한은 경제부흥과 더불어 자유화, 민주화, 개방화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는지, 단순하고 순박한 사람이 억제되었다가 해방을 맛보게 되면서, 그리고 미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미처 길러오지 못했기 때문인지, 통제가 무너지면서 행동표현과 감정표현이 자제의 범위를 넘게 된 것 같다. 즉 사람들은 방만해지고, 질서가 실종되고, 너무 성급해지고, 자제심이 없어지고, 자기 주장하느라고 소란스럽고, 경쟁적이 되고, 이기적, 충동적이 되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흔히 빨리 빨리 중후군(조급성), 대충하기, 새치기, 교통법규의 무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 영악해지고, 착취적이고, 부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한 사람의 행태는 지난 날 동안 중국 연변 조선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였던 행태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다. 그 결과 도덕적 품성과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는 천박해지고, 윤리적으로는 인간생명을 경시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북한도 환경파괴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는 무지와 가난 때문이겠으나 남한은 이기적 탐욕과 신중성의 결핍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해 고통을 느끼며 그에

따라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만성 성인병들과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장애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 우울증, 자살 등이 심각하다. 나아가 자유세계의 특징이 되고 있는 술, 각성제, 마약 등 약물남용 문제, 도박, 범죄 등의 증가도 남한 사회의 최근 변화의 특징이 되고 있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도 무속 또는 사이비 종교나, 특정종교에 광적으로 몰입된 사람도 많다. 그 이유는, 물론 한 때는 가난, 독재정치에 의한 통제 등 북한과 비슷한 상태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보다 기회의 불균형, 과도한 자극, 과도한 자유방임, 과도한 경쟁, 사회적 소외 등 자본주의적 문화 때문이 아닌가 하다.

이러한 사회에서 그러한 부모와 그러한 교사와 그러한 사회의 권위자들 아래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동일시 해온 남한청소년들은 몸집은 커졌으나 독립심과 자율성은 부족한 채, 의존심은 크고 욕구는 과잉되고 성인처럼 문란한 행동을 먼저 배우는 등 어른흉내 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웃자란 아이”들이 되어 버렸다.⁴⁸⁾ 과거와 달리 오랜 부모애의 의존, 즉 사춘기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유예기간(moratorium)이 연장되어 있다. 거기다가 과잉보호, 가정교육의 상실, 온갖 종류의 자극의 과잉, 공부와 경쟁에 대한 압박, 교실붕괴, 비행의 증가 등 통제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인격발달 수준으로부터 장차 어떤 어른으로 이어서 성장할지 예측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예상컨대, 남한의 성인들은 덩치는 크나 체력은 허약한, 그리고 요구만 많고 신중하지 않고, 성급하고, 이기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을 중시하는 고립된 인간, 겉으로는 멋대로 이고 당당하나 속마음은 여전히 어리고 여려서 타협할 줄 모르는 자폐적인 생활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리라고 생각된다.

48)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2. 의식구조의 차이의 배경

남북한 사람들이 보이는 의식구조의 차이는 결국 문화의 차이에 따른 인격발달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문화의 차이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횡문화적 비교를 함에 있어서 한 쪽의 잣대로 다른 한쪽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연구는 다른 문화의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가 형성된 토양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으로 유전적으로 오랫동안 동질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 한자 문화권 가부장적 가족 등 동일한 역사경험을 해왔다고 본다면, 현재의 상호 이질적 문화는 지난 50년간의 분단에 의한 이념적, 체제적 차이에 의한 강압적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⁴⁹⁾ 즉 각각 남북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문화 탓이다. 이장호는 “같은 언어와 풍습, 그리고 4천년이상 함께 살아왔고, 그래서 같은 한 민족끼리 다시 함께 살아가고자”하는 남북한 동질성의 심리적인 원형이 있기는 하나, 분단 이후 체제 종속적 사회 환경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이질화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내용으로 고착되게 되었다고 하였다.⁵⁰⁾

사회환경이라면 이는 그 사회가 갖는 바로 문화인 것이다. 남북한 간의 차이는 바로 이 문화에서의 이질성이다. 이질적인 문화에서 한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그 개인은 그 문화에 적응하여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즉 문화에 적응하여 성장함으로 그 사회문화에 맞게

49) 도홍열, “남북한 체제변화 과정과 주요 사회적 관행의 변동양상,” *사회문화분야,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1994); 안창일, “남북한 사회이질화 현상극복에 대한 소고,”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북한 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세미나*, (1997).

50) 이장호, *『통일의 심리학』* (서울: 정토회, 2000).

사회화(socialization) 또는 문화화(acculturalization)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회는 그 문화에 적응하게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한사람, 북조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60대 이상인 사람들은, 즉 분단시대 이전에 소아청소년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절의 문화적 경험에 공통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역 문화적인 요소 이외에 기본적 인격성향에 공통적인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분단 50년 이후 전개된 남북한간의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과 강한 정치적 통제, 폐쇄성, 전통적-유교적 가치관, 권력세습으로 증명된 가부장적 가족주의 문화, 강력한 수령숭배 그리고 경제적 궁핍상황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는 현재 남한의 문화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즉 남한 사회는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다양한 자극에 대해 개방된 사회, 현대적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여유 등이 어우러진 문화를 갖고 있다.

문화는 한 사회에 속한 개인 개인이 그 사회에 주어진 여러 외부의 도전들과 개인 내부의 생태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즉 한 집단 또는 한 사회나 한 체제가 침범적 환경과 개인적 욕구의 갈등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으로, 즉 내외의 도전에 적절히 적응하는 가운데 문화가 결정되는 것이다. 문화는 전체적으로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생겨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북한 사회의 문화도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나 압력으로부터 살아남기의 방편으로 발달되었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북한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입버릇처럼 훈육하는 것으로 “말조심하라”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그것이 과거에는 “차조심해라”였으나, 요즘은 “공부해라”이다. 이 모두 그 개인의 생존전략과 문화의 결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남북한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체제는 물론, 안보전략, 외교정책

그리고 이념마저도 각기 살아남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형성된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시점은 남북한 각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적 체제로 된 이후에 교육받고 각각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라온 세대가 성장하여 기성세대가 되어 다시 자신들의 2세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의 토양에서 성장한 청소년이나 성인의 인격은 서로 다르리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이러한 남과 북의 차이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주입된 지식의 차이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성격 형성 과정에서 무의식 깊이 학습되고 내면화(internalization)되어 인성으로 통합되어, 다른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후의 세대, 특히 신세대에 이를수록 이질적인 문화에 의해 인격성향의 이질화가 심해지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장차 남한사람과 북조선사람들의 인격성향에서 이질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IV. 결 론

저자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고 기존의 북한사람들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사람들이 어떤 의식구조, 즉 인격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유추하고 토론하여 보았다. 북한사람의 의식구조의 특징을 저자는 단순성, 순응성, 집단주의, 학습된 무력감, 경직성, 사상우위성, 이타주의, 도덕적 이중성, 그리고 영적 빈곤으로 보았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낙관성, 긴장, 피해의식, 수동공격성, 충동성, 학습된 무력감과 침체와 우울증이 지배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은 결핍과 통제라고 판단된다. 한편 최근 더욱 악화된 빈곤과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은 북한사람들의 의식구조와 가치

관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을 향한 교류와 체제변동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충격이 될 것이다.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사람 모두에게 서로가 그 동안 가지고 살아온 체제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회나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인격과 의견 그리고 자주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순수함과 순응성, 정보부족을 이해하고, 이를 약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통일 과정 중에 우리가 서로 사귀는데 소홀하지 않으며 서로 대화하고 함께 발견하고 같이 일하며 늘 타협을 통해 결정하고 서로에게 만족한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통일 후에 상호 이질적 문화경험에서 유래하는 선입견과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 한 편에 계속되는 결핍상태와 그에 따른 합병증이 있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강한 통일국가이다. 결핍된 이웃을 돋는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 자체가 보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남한)가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 보답한다는 것, 사랑과 인도주의 정신, 냉전 구조를 극복하고 과거 동족 상간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 전체 한민족이 한 단계 성숙하는 길과 같은 순수한 정신적 이득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정신적 결핍상태의 회복은 일방적 지원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남한은 개방과 민주화로 나아 왔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졌으나, 또 다른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배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사회가 과연 북한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배풀 수 있는 무엇을 가지

고 있는가, 정신적으로 우리는 결핍된 것이 없는가, 오히려 우리는 북한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협력에 있어서도 남한의 “상업주의 보건의료”만으로 우리 민족 전체의 건강한 공동체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⁵¹⁾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제도의 통일에 있어 양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과 민족적 역량에 의한 자주적 방안,⁵²⁾ 또한 통일에 의해 남한의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⁵³⁾ 등도 바로 이러한 상호보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일찍부터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 없이 통일이 될 때, 독일통일 후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등국민”과 같은 갈등상황이 깊어지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 대화가 진실되기 위해서는 상호 감정이입 상태가 성립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교류와 지원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⁵⁵⁾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것,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교류하여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통일 후 북한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될 문제는 그들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우리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부족인 점이

51) 임종철, “보건의료 지원의 경험과 평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 주최 국제심포지움 ‘북한의 의료 협력: 무엇을, 어떻게,’ 2000년 6월 1-3일.

52) 문옥륜, “남북통일시대의 보건의료정책개발,” 대한의학회 주최, 남북한 통일의료제도 정책개발 심포지움, 1998년 3월 27일.

53) 손명세·이용감·박종연,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변화』(서울: 아주 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0).

54) 민성길, “결핍과 보완, 그리고 상생,” 『대한의사협회지』 44권, (2001), pp. 237-243.

55) 임종철, 앞의 글.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돋는 경험을 통하여, 경쟁적이며,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남한 출신 사람들도 함께 나누는 경험과 훈련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과거에는 서로 증오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이웃으로 받아드린 사람들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의 통일”이라는 민족 과제가 완수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역량도 한번의 성숙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이영선·전우 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 도홍열. “남북한 체제변화 과정과 주요 사회적 관행의 변동양상.” 사회문화분야.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1994.
- 문옥륜. “남북통일시대의 보건의료정책개발.” 대한의학회 주최. 남북한 통일의료제도 정책개발 심포지움. 1998년 3월 27일.
- 민경환. “심리적 관점에서 본 한국통일.” 『심리과학』 3권. 1999.
-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 민성길.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과 적응문제.” 『통일 이후』 1권. 1998.
- 민성길 편.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99.
- 민성길. “남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 『통일연구』 4권. 1999.
-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민성길. “결핍과 보완, 그리고 상생.” 『대한의사협회지』 44권. 2001.
- 민성길 · 전우택. “사람의 통일-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발표논문. 1995.
- 민성길 · 전우택 · 윤덕룡. “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 개발연구보고서. 1998.
- 박갑수. “북한사회의 집단적 개인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1998.
- 박명철. “주체철학의 이해와 평가.” 연세대학교 세미나 1999년 11월 22일.
- 박종철 · 김영윤 · 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서병철 · 전경수.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4.
- 성영신 · 성정희 · 심진섭.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 손명세 · 이용감 · 박종연.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변화』 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0.
- 안찬일. “남북한 사회이질화 현상극복에 대한 소고.”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북한 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세미나. 1997.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사회, 문화적 측면에 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1995.
- 윤덕룡 · 전우택 · 민성길. “독일통일에 있어 구 동독인의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 개발연구보고서. 1998.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 대학원. 1994.
- 이은죽.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 『북한연구』 1권. 1990.
- 이장호. 『통일의 심리학』 서울: 정토회, 2000.
- 이종석 · 김연철.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서울: 통일원
통일연구원, 1996.
-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
석 119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6.
- 임종철. “보건의료 지원의 경험과 평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
주최 국제심포지움 ‘북한의 의료 협력: 무엇을, 어떻게.’ 2000
년 6월 1-3일.
- 전우택.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
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권 1호. 1997.
- 전우택 · 민성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 ·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 전우택 · 민성길 · 이만홍 · 이은설.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
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권 1호. 1997.
- 전우택 · 민성길 · 윤덕룡. “북한 탈북자들의 정신건강 및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연
구 보고서. 1998.
- 전우택 · 윤덕룡 · 민성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40권. 2001a.
- 전우택 · 윤덕룡 · 민성길. “남한 비정부기구(NGO) 소속 자원 봉사자
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분석.” 미발표 논문. 2001b.
- 전태국.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의 변혁』 서울: 한울,
1998.
-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
책연구』 7권 1호. 1996.
- 차재호.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2000년도 한국심

- 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2000.
- 최현·김이영. “청소년 성격 형성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 한성열.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
- 함재봉. “남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의 동질화 과제: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 과제.”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소. 북한 연구센타 학술회의. 1993.
- Böhm J., Brune J., Floerchinger H., Helbing A. & Pinther A. *Deutschen Stunden, Was Jugendliche von der Einheit Denken.* Berlin: Argon Verlag GmbH, 1993.
- Brofenbrenner U. *Two Worlds of Childhood: US and USS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0.
-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8.
- Freud S. *The Dissolution of the Oedipus Complex.* London: The Hogarth Press, 1961.
- Genosko J. “Zwischenbilanz der Inneren Einheit in Deutschland.” (독일 내부통일에 대한 중간결산). 한국사회학회 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 Heinicke C. “Some Effects of Separating Two-Year-Old Children from their Parents.” A Comparative Study. *Human Relations* 9. 1956.
- Inhelder B. & Piaget J.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Wiley, 1958.
- Kasse M. “Innere Einheit, In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n Bildung. 1993.
- Kohlberg L. “Moral Stage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

- opmental Approach." Lickona T.(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ew York: Leihart and Winston, 1976.
- Maaz. *Der Gefuhlsstau*. Berlin: Argon Verlag. 1990.
- Roger R., Bronfenbrenner U., & Devereux EC Jr. "Standards of Social Behavior among Shell Children in Four Culture." *Int J Psychol* 3. 1968.
- Shell J. Jugen. Lebenslagen. Orientierungen und Entwicklungs-perspektiv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2.
- Triandis HC.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0.
- Wirtuk E. "Makrostrukturelle Verandelungen in Ostdeutschland-Objektive und Psyschen Auswirkungen." 원광사회과학연구소 초청강연. 1998년 11월 10일.

Abstract

Personality Structure of North Koreans

Sung Kil Min*

In spite of a common cultural heritage, different, even contrasting social systems have developed in North and South Korea over the last 50 years since it was divided as a result of different ideologies. Since the Korean war, there has been essentially no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As a result, North Korea has developed into an authoritative strictly controlling and dogmatic communist society. The culture in North Korea has becom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which like the North, has an agricultural heritage but has developed into a free, industrialized and democratic country. Accordingly, it is natural to think that unique personalities have been shaped through life experience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in the two different cultures. These psychological differences may be found among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their adaptation problems in South Korean society may reflect these psychological differences barriers and conflicts that a future unified society of the two Koreas may have to deal with.

Recently, the number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have

* Professor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reased, and currently exceeds 1,000. The issues related to a defectors' life in South Korea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because ① living together with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means that the unification process is already happening, ② they are creating preliminary conditions to a future unified society, and ③ South Koreans experience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ill determine the attitudes of South Koreans for a future unified society.

With this background, the authors have conducted studies on defectors and their adapt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In this presentati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on the experie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protecting policemen and NGO volunteer helpers with the defectors are analysed. In addition, studies on the life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North Korea is presented. Furthermore, a review o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s, which have been shaped during same period of turbulence, is provided.

Based on these studies, a typical personality profile and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atterns of North Koreans will be speculated. Briefly, North Koreans appear to be simple, innocent, rigid, and dogmatic. They lack general information on the outside world and religion, have a poor ability for handling money, are inhibited, self-controlling, splitting objects, altruistic and are group-oriented. In contrast, typical South Koreans appear to be dynamic, out-going, expressive, self-assertive, hard working,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Before there is mutual understanding, these differences are thought to cause conflict, or even culture shock when the two

peoples meet and live together in a the same society. As an example, because of the lack of skills and general information on a free and competitive society, defectors from North Korea have difficulties in securing jobs and consequently feel inferior and discriminated. Their high expectation for government or social organizations to assist them, which they used to be familiar with, is often not met. Their inhibited emotional reactions tend to be easily expressed impulsively and a tendency toward mistrust and splitting have been used to create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ns

These studies also suggest that defectors have suffered from various adaptation problems in the free but competitive capitalistic society of South Korea. Their problems are thought to be related in part to cultural differences, and to their characteristic personality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patterns, which had been developed and shaped through their previous childhood experiences and education in North Korea.

The following discussion will focus on predicted conflicts and barriers to unification process, or even culture shock when two people meet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How to resolve or overcome these conflicts and barriers will be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peaceful and fin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